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33

JCCT 2022-11-40

세상으로 나아가기의 문화적 의미
- 『삼국유사』 <피은>편을 중심으로

Cultural Implications of Moving into the World
- Focusing On <Pieun> section of 『Samkukyousa』

김경섭*, 김정래**

Kyung-Seop Kim*, Jeong-Lae Kim**

요약 우리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콘텍스트가 옛이야기의 텍스트화에 개입한 흔적을 찾는 작업은 이야기를 새롭게 읽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삼국유사』의 <피은(避隱)>편에는 세상을 피하고 숨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편찬자인 일연의 의도하에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다. 즉 편찬자에 의한 텍스트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논의는 <피은>편 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숨을 것인가’에 대한 편찬자 일연 스님의 통찰을 읽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은>편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숨고자 하는 인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한다. 그 결과 편찬자 일연 스님의 의도에 표제의 의미와 정반대 서사인 연회 이야기에 존재하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킨 일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행위가 한 개인에게 중요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과 세상을 등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색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불교적 변증법이 발생한 것이다.

주요어 : 설화, 콘텍스트, 텍스트화, 일연, 삼국유사, 피은, 연회, 드러남과 숨음, 처세

Abstract Finding traces of the numerous contexts that exist in our culture surrounding an old-narrative and leading to it's textualization provides a chance to read the story anew. The ‘Pieun(避隱)’ section of ‘Samgukyusa’ contains the stories of people who hide from the world and avoid it, as well as the different types of stories by the compiler, the Buddhist monk, Ilyeon. In other words, the compiler has textualized the story. This study aims to attentively analyze the specific story in the ‘Pieun’ section and read the insights of the compiler on whether to move into the world or hide from the world. Through this analysis, it is apparent that the episode of ‘Pieun’ does not only illustrate the characters who wish to escape or hide from the world, but it also enables readers to grasp the intention of Ilyeon who deliberately includes the banquet story which is contrary to the meaning of the title. In the ‘Pieun’, he emphasizes that the behavior of revealing and hiding oneself to and from the world has significant religious and cultural meanings for an individual. The writer, without distinguishing people who move into the world or hide from it, used the Buddhist Dialectics method to present a different interpretation.

Key words : Fable, Context, Textualization, Ilyeon, Samkukyousa, Pieun, Yeonhoe, Revealing and Hiding, Behavior

*중신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저자)
**중신회원,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jlkim@eulji.ac.kr

Dept. Biomedical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Korea

1. 서론

일반적인 텍스트의 성격과 달리 설화라는 텍스트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 근래에는 모든 텍스트를 결과물로 보지 않고 상호적이고 소통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지만, 설화는 일부러 그런 경향에 맞춰 다룰 필요가 없다. 원래부터 설화는 그 과정 자체가 텍스트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설화는 말로 구연하던 글로 편집하던 그 전달 주체를 둘러싼 맥락까지 통합된 텍스트로 취급해야 한다 [1].

설화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설화에는 정전이나 선본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이본의 변화가 극심한 양상을 드러낸다. 설화의 이런 속성 탓에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완벽한 텍스트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 의의도 매우 취약한 것이다.

반면 오히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텍스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포착하는 것이 구비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 연구는 완벽한 서사의 이상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 설화는 항상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말로 전승되거나 글로 전해온 이야기들에는 인간이 지표로 삼아야 할 숭고한 교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아직까지도 특정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설화에 순진무구한 교훈성이나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 구연 현장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세련되고 정제된 것들 보다는, 왜곡되고 변질된 채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2].

설화는 현장에서 구연되는 이야기와 문헌으로 전승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현장에서 말로하는 구연 이야기의 화자가 구연자라면, 문자로 전해지는 문헌 전승 이야기의 화자는 서술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헌 전승에서는 서술자라는 담화 주체 말고도 편찬자라는 또 다른 담화 주체가 존재한다. 그는 이야기 세계 밖에 존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구연 설화의 이야기 구연자와 비슷하지만, 이야기를 현장에서 창조하고 있기보다는 독자와 시·공간적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현장 구연자와는 이질적이다.

본 논의에서 주로 다루게 될 문헌 설화의 경우 특정 서적의 편찬자에 의해 어떤 이야기가 선택되고 배제되는지 그 과정을 논의하기 매우 어렵다. 어떤 이야기가 선택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전후의 사정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채택된 이야기 내용으로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된 이야기들의 성격으로부터 이른바 ‘편찬의식’ 내지는 ‘편찬태도’ 등을 논의할 수는 있다.

이미 선택된 이야기들은 편찬자의 선택 기준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므로 전승 주체에 의한 ‘텍스트화’의 일단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텍스트화’란 텍스트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첨가·축소·왜곡 등의 변형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말로 구술(口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글로 기술(記述)하는 행위 모두 구연자나 편찬자에 의한 ‘텍스트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3].

구연 설화의 경우에는 창작 주체가 이야기를 창조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전승의 주체가 전달과 재창조의 목적으로 현장에서 구연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달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텍스트화’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 문헌 설화의 경우에는 창작의 주체는 아니지만 현장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난 전승 주체가 자신의 의도대로 설화를 ‘편집’할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서 문헌 설화에서는 구연 설화에서처럼 현장의 ‘실수’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텍스트화 자체의 문제점을 의식적으로 노출하면서 고도로 고안된 별다른 의도를 편찬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연(1206~1289)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왕법(王曆)·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의 5권 9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 권의 변별력이 별로 없으므로 5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9개의 편목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세부 편목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편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계 되면 편찬자인 일연의 편찬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

『삼국유사』 편목 중 <피은(避隱)>편에는 세상을 피하고 숨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의는 <피은>편 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숨을 것인가’에 대한 편찬자 일연

스님의 통찰을 읽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은>편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숨고자 하는 인물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편찬자 일연 스님의 의도 하에 숨겨져 있음을 밝힐 것이다.

II. <피은(避隱)>편의 두 가지 모습

아래에 소개하는 <피은>편의 두 이야기 ‘연회도명문수점(緣會逃名文殊岾)’과 ‘물계자(勿稽子)’는 같은 편목 내에 속하는 이야기이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다. 먼저 고승 연회가 명예를 피해 가다가 문수보살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표1과 표2와 같다.

표 1. 연회도명문수점

Table 1. Yenhoi-Domyung-Moonsu-Jeom

고승 연회는 일찍이 영취산에 숨어 살면서 불법을 닦았다. 고려왕 원성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불러 국사로 삼고자하자 그는 도망쳤다. 그는 도망하는 도중에 한 중을 만났는데 중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연회는 나라에서 잘못 듣고 자신을 관직에 봉하고자 하여 피해 도망한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중이 “이곳에서도 장사 할 것이지 왜 먼데서 팔려고 수고 하십니까? 스님이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고 말한다. 연회는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몇 리를 더 가다가 노파를 만나는데 그녀는 방금 연회가 만난 노인이 문수보살이라고 알려 준다. 연회는 그제 서야 깨달고 그 노인에게 돌아가 사과한다. 그 노파는 변재천녀였다. 연회는 진작 받았어야 했을 임금의 명을 받고 국사로 봉해진다. 연회가 노인에게 감응받은 곳을 이름하여 문수점이라 하고, 노파를 만난 곳을 아니점이라 했다.

- 『삼국유사』 권5 <피은>편

<피은>편의 편목이 가진 뜻은 ‘피세은거(避世隱居)’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 피은은 난세에서만 아니라 어느 때건 지식인이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처신 방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4]. 북한이나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대다수의 『삼국유사』 해석본에서 ‘피은’을 ‘도피와 은퇴’·‘피해서 숨음’·‘도망가 은폐함’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1에서 제시한 <피은>편 설화 중 하나인 ‘연회도명문수점’은 속세를 피하여 숨는 행동을 취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물계자’와는 다른 내용을 보인다. 연회는 피하여 숨거나, 도망하여 은폐하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도리어 ‘피은’이 ‘숨는 것을 피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표 2. 물계자

Table 2. Mulgeoja

신라 제10대 내해왕 즉위 17년에 주변의 여덟 나라가 합세하여 침공해왔다. 왕은 태자 내음과 장군을 보내 막게 했다. 이때 물계자의 공이 으뜸이었는데도 태자에게 미움을 사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계자는 임금의 지위와 지사의 의리를 중히 여겨 그 상황에 복종했다. 내해왕 20년에 주변의 세 나라가 신라의 변방을 치자 왕이 친히 나아가 이를 물리쳤다. 이때에도 물계자의 공은 단연 으뜸이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하였다. 물계자는 불충과 불효의 예를 상실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 하에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메고 사체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 『삼국유사』 권5 <피은>편

문제는 <피은>편 내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물계자처럼 세상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숨기는 이야기인 반면 유독 연회 스님은 결과적으로 숨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즉 숨지 않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삼국유사』 다른 편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기이>편의 경우, 기이한 일도 마땅히 실을 수 있다는 일연의 편찬의식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지만 정작 전혀 기이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이>편에 실려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은>편의 다른 설화들과 ‘연회’ 이야기의 관련성을 언급한다면 ‘연회’이야기의 특별함은 더욱 부각된다. 왜냐하면 <피은>편에 속한 총 10편의 이야기 중 연회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계자 이야기를 포함한 9편 설화에는 한결같이 속세를 피해 숨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연회’ 이야기에 묘사된 바대로 그의 숨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행위라는 문수보살의 지적은 그의 행동이 그 당시의 문화적 맥락 하에서는 매우 ‘유표marked’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표적이란 말은 ‘무표unmarked’적의 반대말로서 매우 문화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유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맥락 하에서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일탈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복의 유행에서 잘 드러난다. 의복의 유행은 흔히들 들고 돈다고 한다. 어느 때는 어떤 식의 복장이 유행이 되고 어느 때는 유행이 되지 않는다. 일단 유행이 된 이후의 그 복장은 무표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표적인 의복을 따라 입게 되지 않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의복은 점점 무표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 지점은 유표성의 통시성 무표성의 공시성과 만나는 지점이며, 이때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전에는 유표적이었던 의복을 즐겨 입게 된다. 이런 면에서 ‘요즈음 유행하는...’이라고 말하는 모든 문화 현상은 사실 우리의 문화생활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유표적인 것에서 무표적인 것으로 막 바뀌기 시작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5].

왕의 칙명은 모든 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공식적으로 최상위 계층으로의 편입을 인정받는 일이다. 이러한 최대의 세속적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표적’ 행동이며, 따라서 세인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더욱 우러러 보게 된다. 여기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치성과 권력성을 띤 것이므로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어떤 것이다. 그렇기에 고승 연회는 종교적 맥락 하에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숨으면 숨을수록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 出處의 속성이며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 연회는 세속적 출처관의 이런 측면을 초월하지 못했다. 문수보살은 세속적 출처관을 초월하지 못한 연회 앞에 나타나 빈정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회는 숨지 않는다. 문수보살의 충고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런 그의 행동은 왕의 칙명을 충실히 따랐기에 세속적 맥락 하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무표적인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연회’ 이야기는 피하고 숨는다는 <피은>편의 표제에 맞지 않은 이야기로 비취질 수 있는 것이다.

물계자의 경우 표2와 같이 그의 숨음은 세속적 맥락 하에서는 유표적 행동일 수 있다. 세속인이 ‘관계단절’을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권위를 지닌 인물이나 계층으로부터 공식적인 능력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일은 세속적인 인간이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세상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다. 즉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무표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등지고 숨어 버린 물계자의 행동은 매우 ‘유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회의 행위가 무표적이고, 물계자의 행위가 유표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도, 문화적인 맥락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 맥락 하에서는 속세를 버리지 않는 연회의 행위는 유표적이며 속세를 버리는 물계자의 행위는 무표적이다. 연회의 행동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불도를 위해 정진하는 불승들의 세계에서는 매우 특출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는 물계자의 행동은 불법을 공부하고 세상의 번뇌를 고민하는 불승의 눈에는 유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속세를 피한다는 행위는 불승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동인 것이다.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의 편찬 태도는 흥법3 이하 효선9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관련된 것이며, 일면 불법의 위대함과 그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회의 행동은 불교적 관점에서 유표적이며, 세속적·문화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어서 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불교설화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불교의 수많은 화두를 세속인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 그 화두에 얽힌 일화가 중요시 되는데 그 이유는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세속적인 논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설화 중에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지만 세속적 관점에서는 유표적인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연회의 이야기는 불승이 주인공인 설화 중에서 매우 특이한 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물계자의 경우 그의 행동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며, 세속적·문화적 관점에서는 유표적이다. 즉 일연은 연회 이야기에서는 불승으로서 유표적인 사례를, 물계자 이야기에서는 일반인으로서 유표적인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어떤 인물 또는 상황을 유표적으로 꾸며내는 일련의 작업으로 상정한다면 연회의 이야기는 불교적 맥락을 중심으로, 물계자의 이야기는 세속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연회는 불승이고 물계자는 세속인이라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귀결점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피은'의 해석
 Table 3. Interpretation of 'Pi-Eun'

		연회	물계자
'피은'의 해석		숨는 것을 피함	피하여 숨음
유표/ 무표성	세속적 맥락	무표적 Unmarked	유표적 Marked
	불교적 맥락	유표적 Marked	무표적 Unmarked

결과적으로, 표 3에서 두 편의 설화는 불승이 세속인처럼 행동하고, 세속인이 불승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성립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불승이 관계 맺기에 치중했고, 관계 맺기에 열중해야 할 세속인이 관계를 단절했기에 흥미있는 이야기가 성립한 것이다.

일연은 무슨 의도로 이 두 사건을 동일한 편목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여 서술하고자 했을까? 여기서 <피은>편을 도피하여 숨는 것으로만 해석했던 설화 읽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분명 서로 다른 방향의 피은이 발생했으니 합당한 해석을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일 시대에 있어서 유표성을 달리 하는 두 행동이 같은 가치를 표방함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서로 다른 행동이 함께 속할 수 있는 상층의 관념이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국유사』 <피은>편은 표제가 제시한 바와는 달리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연에게 있어서 인간이 처한 공간의 문제는 그 인간 자신의 의지와 관념에 비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공간이든지 인간의 욕망을 실현 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전제가 그에게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승 연회는 숨음으로써 더욱 드러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깨닫고 현실 공간을 인정하게 되며, 물계자는 개인의 진정성과 현실사이의 간극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의 해소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도 추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두 이야기에서 종교적, 세속적이라는 맥락

하에서의 일반적인 출처관이 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한 개인이 어느 곳에 처하게 되는가의 문제보다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진정성이 자신이 처한 공간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인물들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세상으로부터 숨느냐의 문제는 한 차원 높은 문제로 승화된다.

III. 인물의 공간이동과 문화적 의미

인물의 공간 이동은 설화 공간의 설정을 전제로 한다. 설화의 인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공간을 갖는데, 이 공간은 그들의 본질적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상적 인간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닌 인물의 공간은 지상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공간들 가운데 닫히거나 범주화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공간을 내적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 공간과 대립되는 공간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열려 있거나 범주화될 수 없는 공간으로서, 이는 곧 외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공간과의 이러한 관계를 간단히 하자면 '안'과 '밖'에 대한 인간의 관념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안' 즉 내부 공간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며, '안전한', '조화롭게 조직된' 것들이다. 반대로 '밖' 즉 외부 공간은 '그들의 것', '위험한', '혼돈스런', '반대의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내/외'의 양분론에 의한 구분은 곧 가치의 양분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야기 등장인물과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야기가 드러내는 공간 인식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문화적 의미도 구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삼국유사』 <피은>편 설화는 다음의 두 가지로 유형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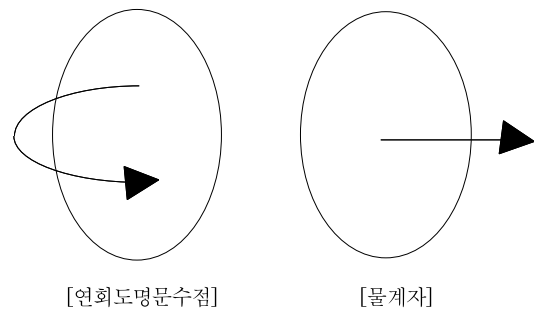


그림 1. 공간 이동의 두 가지 유형
 Figure 1. Two Types of Space Movement

연회는 애초에 인간 세계 바깥의 외부 공간을 지향한다. 그림 1에서 보여진 것 같이 그에게 속세 즉 내부 공간은 그의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공간이며, 세속의 공명과 부귀는 그에게 있어서 불법을 정진하는데 장애물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연회는 문수보살이라는 초월계의 존재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다시 내부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물계자는 충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려 애쓴 인물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합리적인 평가만이 돌아온다. 그는 그에게 돌아오는 비합리적 평가를 그대로 수긍하며, 도리어 모든 결과를 자신의 불충의 소산으로 돌리며, 인간 바깥 세상인 외부 공간으로 나아간다.

연회의 이야기에서는 내부 공간의 질서가 외부 공간의 이념에 지배당한다. 연회는 불교적 진리의 깨달음을 외부 공간의 조력자인 문수보살과 변재천녀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초월적인 것(외부 공간)이 지상적인 것(내부 공간)을 통합하는 양상이다. 연회에게 있어서의 내부 공간은 물계자의 그것과는 달리 버려야 할 공간이 아니다. 도리어 자신의 욕망과 불법을 함께 실현할 공간인 것이다.

물계자의 이야기 역시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의 비합리성과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여기서의 외부 공간은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그런 공간의 존재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닌 것이다. 물계자에게 있어서 내부 공간은 버려야 할 대상이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곳이다. 양자 모두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을 통합하며, 제어한다는 면에서는 상응하지만,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은 <피은>편이 인간이 몸담고 있는 내부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종교적으로는 계도의 대상이며 세속적으로는 버려야 할 어떤 속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시 물음이 필요하다. 일연은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동일한 편목에 배치했을까.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연은 인간과 세계와의 불일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나간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 <피은>편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일연은 ‘연회’ 이야기를 고의로 <피은>편에 배치하여 출처의 문제, 공간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위와 같은 문헌설화에서 전승 주체 의도가 구연 전승되는 이야기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문헌 설화의 경우 연회 이야기와 같이 편목명에 불일치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포함된 것은 다분히 편찬자의 자의적인 의도이다. 이 부분은 말로 구연되는 이야기와 문자로 전승되는 이야기의 텍스트 생성 면에서의 차이가 텍스트 산출에 영향을 미친 예라 할 수 있다. 즉 口述과 記述의 문화적 관습 차이가 이야기 전달 양상에 관여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독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회 이야기는 <피은>편 내에서 가장 문제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편집자인 일연의 실수가 아니라 여겨지는 이유는 앞서 거론한 문제들 때문이다. 승려 생활이란 처음부터 숨음이기에 은거를 말하고자 할 때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그것을 한 차원 넘고 시작해야 한다. 보편적인 불교의 사고방식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분화의 개념은 무시된다. 만약 연회의 이야기가 누락되었다면 숨는 것이 숨는 것이 아니며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교적 진리를 <피은>편은 함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연은 편목 명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포함시켰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고도로 고안된 별다른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은>편은 물계자와 연회를 동일한 층위에서 살펴보는 불교적 콘텍스트를 생성시키게 된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과 세상을 등진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불교 특유의 변증법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피은’이란 일연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한다면 도피하는 것만 뜻하지 않고 ‘숨음/드러남’을 함께 내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숨는 것을 피하는 연회 스님 이야기가 <피은>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서사에는 저자나 편찬자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며 [6], 어찌면 일연은 불승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서사를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IV. 고찰 및 결론

설화는 정적인 장르가 아닌 동적인 장르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성격의 것이기에 설화라는 텍스트가 변모해 가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설화에 대해 부여한 가치들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설화가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장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특정 설화의 의미 역시 연행 현장에서 혹은 편찬자의 편집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창조 된다는 점을 그동안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설화를 해석할 때 텍스트화에 개입할 수 있는 복수의 콘텍스트를 최대한 의식했나 하는 문제 의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다만 설화의 이런 측면이 설화의 문학 장르로서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하고 싶다. 설화가 이전 시대의 낭만적이고 순백했던 고대의 장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직도 전승되고 있는 현재의 장르임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변화무쌍한 설화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설화의 유동성과 적응성 혹은 현장성과 변동 가능성은 설화가 설화일 수 있는 설화 장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설화의 의미 불확정성 내지는 변형성에 기여한 콘텍스트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읽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가령 우리나라 廣布설화의 경우, 해당 이야기가 왜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 그 광포성에 대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분포 상의 확대를 야기한 다양한 콘텍스트에는 정치·권력적인 콘텍스트에서부터 화자 개인별 콘텍스트까지 그 과정은 엄청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포성을 띤 설화를 해석하면서, 의미의 지고지순함이나 윤리적 도덕성의 가치로부터 그 광포성의 이유를 찾는 것은 설화라는 텍스트에 개입한 다양한 콘텍스트를 도외시한 해석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설화라는 장르의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고,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콘텍스트가 설화의 텍스트화에 개입한 흔적을 찾는 작업은 설화를 새롭게 읽기 위한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피은>편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에 의문을 느낀 것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에서 『삼국유사』의 <피은>편에 속하는 한 이야기가 ‘피하고 숨는다’는 편목의 의미대로 읽힐 수 없음 논의하였다. 그 결과 편목의 의미와 정반대의 서사가

연회 이야기에 존재했고, 이런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킨 일연의 의도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出處의 문제, 處世의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역설하고자 했으며, 그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떠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References

- [1] K.S. Kim, J.L.Kim, “The Significance of Korean Proverb and Riddle in the sense of Bia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3, No.4, pp.35-42, 2017.
- [2] K.S. Kim, J.L. Kim, “The Behavior Economics in StoryTelling,”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4, pp.335, 2019.
- [3] H.J. Kim, “Orality and Korean-Narrative,” *Woel-In*, pp.55-56, 2003.
- [4] W.K. Ko, “The Age of Ilyeon and 『Samkukyousa』,” *Woel-In*, pp.186, 2001.
- [5] H.S. Song, “Semiotics of Folklore,” *Mineumsa*, pp.198-199, 1999.
- [6] B. A. Babcock, “Reflexivity : Definition and Discriminations,” *Semiotica*, Vol.30, No.1/2, pp.2-10, 1980.